

"보훈의 달" 사랑하는 이들에게

#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기 바란다



사랑하는 막내야! 대학 1학년올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제일 추운 12월에 철원에 있는 부대로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퇴소식에 초대받아서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빠를 향해 줄을 맞춰 씩씩하게 달려 나오는 너와 네 동료인 국군 장병들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하겠니?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효성심으로 가득찬 훈련소의 시간들을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볼만하다고 능글하게 말해주어서 그 동안의 걱정과 우려가 눈 녹듯이 전부 사라지더구나. 여

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나라의 부름을 거부하는 요즘 세상에서 자원해서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 네가 엄마 아빠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우리나라의 최전방, 그것도 수색대대에 배치되었다고 했을 때 아빠는 좀 놀랐는데 현규, 네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기에 아빠는 더욱 더 열심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 항상 겸손하게 주위를 살피며 근무하는 아들이 되길 바란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25Km 행군 시에 발목이 아파 10Km를 남겨두고 완주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너는 더 그랬겠지. 그런데 신병휴가도 뒤로 미루고 다시 도전하여 25Km 행군을 완주했다니 이제 우리 막내가 멋진 진짜 사나이가 되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네

가 아주 대견스러웠지.

부대 개방하는 날에 초청되어 아들을 만나 품에 안을 때 아빠의 마음 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내내 떠나지 않더라. 늘 막내일 것 같은 네가 이렇게 든든한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대에 근무하는 장병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말이지. 항상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선임들도 좋고, 간부들도 잘해 준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아빠가 편지에 써 준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솔로몬처럼" 늘 기도하면서 선임을 대하고 후임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주는 아들이 되기를 엄마아빠도 늘 기도하마.

대한민국 육군 일병 이현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사랑한다! <황의선 권사>

## 백운면 국가유공자 탐방

### 그 때를 회상하며 눈물짓는 모습에 머리숙여 감사



모두 85세에서 최고령 91세(평동2구 함판술씨)까지 분포돼 있으며 그 분 중 3분을 어렵게 인터뷰할 수 있었다.

현재 방학1리에 사시는 최창섭씨(87)는 21살에 해군 17기로 입대해 해병대 6기로 참전했으며 미 해병대와 함께 원산에 투입돼 전투 중 고립되어 중공군과 대치하다 부상을 당해 17개월간 투병 중 제대했으며 애련리 김호연씨(87)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개월간 제주에서 훈련 받고 화천 6사단에 복무 중 헌병학교에 차출되어 후방 헌병으로 57개월 복무하신 백운면 토박이 이시며 이장 13년 면의원까지 지내셨고 또 석천리 유근무씨(87)는 공군으로 참전하여 일반비행기 정비병으로 지상근무 하신 학도병출신의 참전용사였다.

현재는 연로하여 3년 전 조직은 와해됐고 친분이 있는 분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회에서 진행되는 장날전도



에 나오셔서 식사를 함께하는 낙으로 사신다는 소회를 듣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시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교회로 찾아 뵙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는 각오도 보여 주셨다.

그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며 지금은 쇠락하여 볼품없는 촌로에 불과하지만 풍요로운 현재의 밑거름이 되어 주신데 대해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

<문화부>

여기는 서부전선이다. 포탄이 휘날리는 전선 고지에서 내 친구와... 내 친구 간곳없네 순호야 어디 있냐... 자작곡을 소리 높여 부르며 그 날의 참상에 눈물짓는 노병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의 우리를 생각해 본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보훈의 달을 맞아 백운면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의 현황과 동정을 찾아 나섰는데 현재 백운면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는 모두 약 59분이 생존해 있으며 그 중 거동에 지장이 없는 분은 약 19분이었다.

## 봄소풍 "전남 여수여행" 스케치

5월17일(화) 7시 교회출발



봄소풍을 다녀와서...

### 질서와 배려로 믿음의 성숙함까지 자랑스럽습니다



또 전화기가 울린다. "네 권사님. 내일 안 가면 안돼요? 허리가 아파서요. 다리도 아프고, 일이 바쁘고 잘 견지를 못 할 것 같아서요."

출발하는 당일 여러 가지 이유로 봄소풍을 가지 못 할 것 같았던 권사님들이 다 오셨다.

답사도 하지 못했고 편찮으신 분들도 계셔서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한 버스 안에서 하루의 일정을 설명했다.

여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여수 앞바다와 돌산대교를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었다. 연로하신 분들은 동백열차를 타고 한 팀은 걸어서 오동도로 향했다. 뜨거운 태양아래 오동도를 둘러보고 늦은 점심을 먹은 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도착했다.

전체 관람을 못하고 일부만 관람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가정원은 그야말로 넓고 잘 정돈되어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자아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관람차를 이용하고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궁궐정원, 서민정원, 후원 등을 산책 및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남겼다.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복음성과 찬송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며 기쁨에(성령) 취해 찬양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었다. 질서를 잘 지키고 배려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며 믿음의 성숙한 모습들에 그저 고맙다.

봄소풍을 위해 물질과 정신적으로 배려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신 이영신장로님, 회계로 도와주신 황의선 권사님, 이영애권사님, 한영애권사님. 칭찬을 아끼지 않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문화부장>